



이용숙

지배 계급에 도전한 광대 이야기,
베르디의 <리골레토>

아트앤스터디

사람을 중심에 놓는
인문학의 힘을 믿습니다.

인문학 · 문화예술 교육 포털
아트앤스터디

지배 계급에 도전한 광대 이야기, 베르디의 <리골레토>

귀족의 횡포에 저항하는 평민의 패배에 대해 보여주는 베르디의 오페라 <리골레토>. <리골레토>의 탄생 배경과 주제와 줄거리에 대해 알아보고 베르디 중기 오페라의 특징에 대해 살펴본다.

학습 목표

- 베르디 중기 오페라의 특징
- 〈리골레토〉의 탄생 배경
- 〈리골레토〉의 주제와 줄거리
- 〈리골레토〉의 유명한 아리아 〈여자의 마음〉
(La donna e mobile)

강사 소개

• 이용숙

음악 칼럼니스트.

번역가 겸 오페라 전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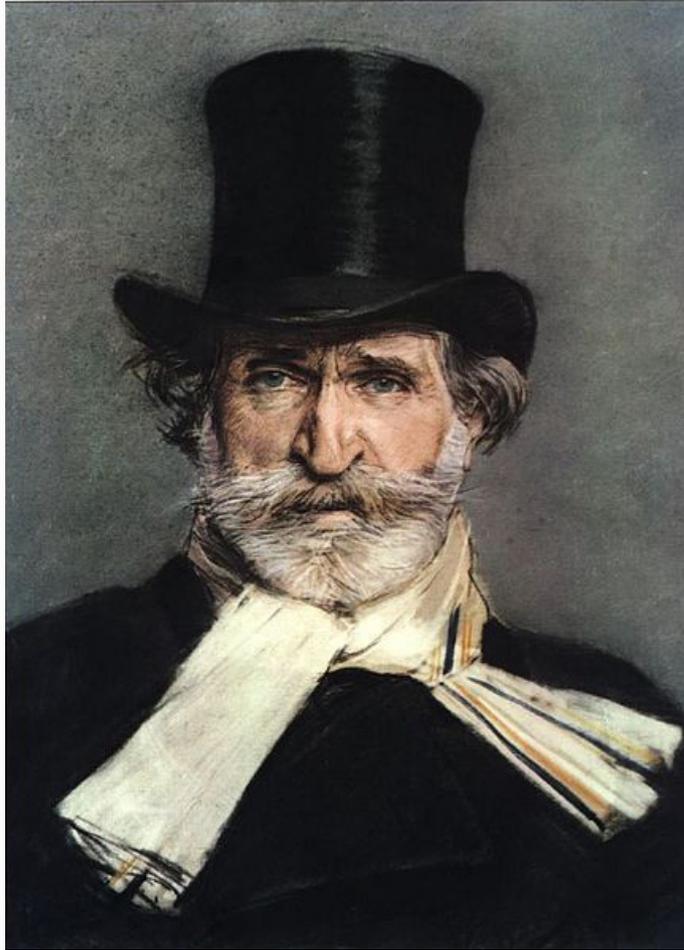
저서 『지상에 핀 천상의 음악』, 『오페라, 행복한 중독』

강의 보기



- 제목 : 지배 계급에 도전한 광대 이야기, 베르디의 <리골레토>
- 강사 : 이용숙 (음악 칼럼니스트)
- 구성 : 21분

지식 노트



주세페 베르디(Giuseppe Verdi, 1813-1901)

이탈리아의 작곡가로, 오페라에 극적 요소를 도입하여 풍부한 감정을 표현하였고 무대에서의 시각적 요소를 강화하는 등 종합예술로서의 오페라 발전을 이루어 내 큰 성공을 거뒀다. <리골레토> <아이다> <라 트라비아타>를 비롯한 26편의 오페라를 남겼다.

지식 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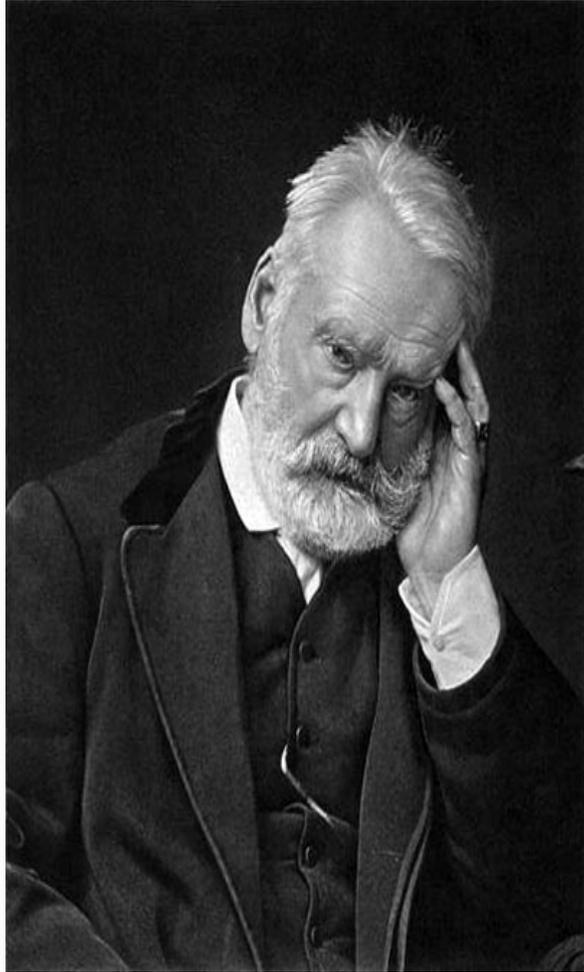


베르디의 중기작품들

1850년대의 작품들을 베르디의 중기작으로 분류한다. <리골레토> <라 트라비아타> <일 트로바토레> <시몬 보카네그라> <가면무도회> 등

이미지: 1997년에 상연된 <일 트로바토레>의 한 장면

지식 노트



빅토르 위고 (Victor-Marie Hugo, 1802~1885)

프랑스의 낭만파 시인, 소설가, 극작가. 하층민의 삶과 휴머니즘을 다룬 소설을 많이 남겼고 정치적 이유로 망명 생활을 하기도 했다. 『레 미제라블』 『파리의 노트르담』 등의 대표작이 있고, 많은 작품이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각색되었다.

강의 노트

주세페 베르디의 중기 오페라

베르디는 중기 작품들에서 인간사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내 관객들로부터 공감과 인기를 얻었다.

베르디는 오페라에 쉬운 민요 선율을 차용한 합창이나 쾌활한 음악, 왈츠풍의 춤곡, 화려한 발레 장면 같은 엔터테인먼트 요소를 도입해 풍부한 볼거리를 만들어 냈다.

<리골레토>의 원작

빅토르 위고의 『왕의 환락(Le Roi s'amuse)』

『왕의 환락』은 존경받던 16세기 프랑스 왕이었던 프랑수아 1세의 부도덕성과 횡포를 비판하는 희곡이었다.

베르디는 비판적 내용 때문에 상연이 금지되었던 『왕의 환락』을 프란체스코 마리아 피아베와 각색하였다.

베르디는 하층민 중에서도 하층민인 광대가 지배 계급의 악행을 꼬집고 공격한다는 점에 매력을 느꼈다.

베르디 역시 왕을 시해한다는 원작의 설정 때문에 상연을 거부당했다.

상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베르디는 왕을 공작으로 바꾸고 배경도 오래 전에 대가 끊긴 만토바 가문으로 설정했다.

베르디가 본래 생각했던 제목은 <저주>였지만 검열에 의해 주인공 이름인 <리골레토>로 바뀌게 되었다.

<리골레토>의 주요 등장인물

리골레토(Rigoletto. 바리톤) : 궁정 광대

질다(Gilda. 소프라노) : 리골레토의 딸

만토바 공작(Duca. 테너)

〈리골레토〉의 주제

귀족의 횡포에 저항하는 평민의 패배

〈리골레토〉에서는 평민의 저항이 패배하지만 그 실패가 오히려 하층민들의 더 큰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

곱추이자 광대인 리골레토는 난잡하고 타락한 귀족 사회에서 자신의 딸만은 순결하게 키우기 위해 노력한다.

리골레토는 공작의 광대임을 무기 삼아 귀족 사회를 비난하고 농락한다.

리골레토에게 양심을 품은 신하들은 리골레토의 딸 질다를 그의 정부로 오해하고 납치해 공작에게 진상한다.

학생으로 변장한 만토바 공작은 질다를 범한다.

분노한 리골레토는 공작을 암살할 계획을 세우지만 공작을 사랑한 질다가 공작 대신 죽음을 맞는다.

대표곡

〈여자의 마음〉 (La donna e mobile)

- 만토바 공작(테너)의 아리아

〈그리운 그 이름〉 (Caro nome)

- 질다(소프라노)의 아리아

리골레토는 질다를 배신한 공작을 죽이기 위해 자객을 고용한다.

젊고 잘생긴 공작은 평민 여자를 유혹하기 위해 변장을 하고 돌아다니곤 한다.

만토바 공작은 리골레토가 고용한 자객의 아름다운 여동생을 기다리며 〈여자의 마음〉을 부른다.

리골레토는 질다를 데려와 문틈으로 여자를 기다리는 만토바 공작을 보여주며 공작이 바람둥이에 지나지 않음을 알려주려 한다.

집 안의 공작과 자객의 여동생, 집 밖의 리골레토와 질다가 모두 함께 4중창을 노래한다.

〈여자의 마음〉(La donna e mobile)은 바람에 흔들리는 ‘깃털’처럼 변덕스러운 여자의 마음을 노래한 아리아이다.

베르디는 단순하고 부르기 쉬운 멜로디인 〈여자의 마음〉을 히트곡으로 만들기 위해 초연 전날까지도 아리아를 부르지 못하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초연이 끝난 후 극장을 나서는 관객들이 모두 〈여자의 마음〉을 흥얼거렸을 정도로 이 아리아는 큰 인기를 얻었다.

학습 요약

- 베르디의 중기 오페라들은 인간사의 섬세한 감정을 표현하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요소로 풍부한 볼거리를 제공해 관객들로부터 인기와 공감을 얻었다.
- 베르디의 중기 작품 중 대표작인 <리골레토>는 빅토르 위고의 희곡 『왕의 환락』을 원작으로 삼았다. 원작의 비판적인 성격 때문에 <리골레토>가 상영되기 위해 많은 설정의 변화가 있었다.
- <리골레토>는 귀족의 횡포에 저항하는 평민이 패배하는 내용이지만 오히려 그 패배를 통해 귀족 사회에 대한 분노를 자아내는 저항적인 성격의 오페라이다.
- <리골레토>에서 만토바 공작이 부르는 아리아 <여자의 마음>은 단순한 멜로디와 재치 있는 가사로 초연 때부터 오늘날까지 변함 없는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인문 퀴즈

1. <리골레토>에서 만토니공작이 리골레토가 고용한 자객의 여동생을 기다리며 부르는 아리아는 초연 후 모든 사람이 흥얼거리며 나왔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다고 한다. ‘깃털과 같다’는 뜻을 가진 이 아리아의 이름은 무엇인가?

- (1) 그리운 그 이름 (Caro nome)
- (2) 울게 하소서 (Lascia Ch'io Pianga)
- (3) 여자의 마음 (La donna e mobile)
- (4) 공주는 잠 못 이루고 (Nessun Dorma)

2. 오페라 <리골레토>는 프랑스의 낭만파 문인인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다. 빅토르 위고는 하층민의 삶과 휴머니즘을 다룬 소설을 많이 남겼고 많은 뮤지컬이나 오페라로 각색되었다. 다음의 빅토르 위고의 소설중 <리골레토>의 원작이 된 것은 무엇인가?

- (1) 징벌 (2) 성주들
- (3) 빛과 그늘 (4) 왕의 환락

인문 퀴즈

3. 주세페 베르디는 오페라에 극적 요소를 도입하고 시각적 요소를 강화 하여 종합예술로서의 오페라의 발전을 이뤄냈다. 특히 베르디의 중기작은 인간사의 섬세한 감정을 치밀한 오케스트라와 함께 담아내 높게 평가받는데 다음 중 베르디의 중기작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 (1) 오텔로 (2) 아이다
- (3) 가면 무도회 (4) 리골레토

정답

1. (3) 2.(4) 3.(1)

3. <오텔로>는 베르디의 후기작이다.

이미지 출처

강의 보기

- http://en.wikipedia.org/wiki/File:Nicholas_Hilliard_013.jpg

지식노트

- <http://ko.wikipedia.org/wiki/%ED%8C%8C%EC%9D%B-C:Verdi.jpg>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Il_Trovatore_3.jpg
- <http://commons.wikimedia.org/wiki/File:Rigoletto-1968.jpg>

지배 계급에 도전한 광대 이야기, 베르디의 〈리골레토〉

강사: 이용숙

발행: (주)아트앤스터디

Tel: 02-323-1081

Fax: 02-323-1082

메일: biz@artnstudy.com

본 강의의 저작권은 (주)아트앤스터디에 있습니다.



아트앤스터디

www.artnstudy.com

ArtnStudy.com